

# 유망기업, 해외 진출 가속페달 밟는다

### 전주시, K-Global 액셀러레이터 운영 시동 창업 7년 미만 우수업체 발굴... 자금 지원

전주시가 유망 벤처기업들에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췄다.

시는 27일 전북중소기업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원탁 전북중기청장,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신혜성 와이즈(주)대표, 황희경 인민일보 문화전매유한공사 한국대표처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전주 K-Global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보육, 소액 투자, 초기 R&D(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해 생존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협약에 참여한 전주시 등 4개 기관은 신성장동력산업인 농·생명 및 탄소, 드론, 3D프린팅 등 융합산업분야의 창업 및 벤처기업의 전략적인 관

드 조성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법률과 경영, 마케팅 등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지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ICT교육과 창업 지원 서비스 등을 꾸준히 제공기로 했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펀딩 1위 업체인 와이즈(주)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제품의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참여기관 중 인민일보문화전매유한공사는 중국 관영지인 인민일보의 출



27일 전북중소기업청에서 '2017 전주 K-Global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중앙)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기업이자 국제문화산업 교류기업으로 중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지역 기업의 중국 등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와이즈(주)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전주 액셀러레이터 사업 설명회 및 클라우드펀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과 취업을 향상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한 ICT 교육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지역 우수인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산업 관련 창업 지원에도 힘써왔다.

또한, 그간의 창업 위주의 지원을 넘어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단계부터 자립·창업준비를 위한 구상을 준비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기업을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지닌 중견·향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이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자금, 인력, 수출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 전주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앞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 요구

전주시의회가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골목 상권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하며 전국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주시 송천동, 삼전동, 효자동 등 세 곳의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마트가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타 대형 아울렛에 흡인숍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교묘하게 출점시키고 있다"며 "가공식품, 생활, 패션 등 판매 품목이 전방위적인 노브랜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지 의장은 "지난 2010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켜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왔듯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주, 농생명산업 경쟁력 '쑥쑥' 건강기능식품 기술지원사업 성과

전주시가 기술지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기업 등 전북지역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7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에서 기술지원사업 관련 유관기관과 지자체 연구소, 수해기업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산업 유망품목 기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지원사업의 2차년도 성과발표, 3차년도 사업추진 방향, 전라북도 지역산업 강역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성과전시회에서는 기술지원·이전, 특허 및 인증 지원 등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2차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비R&D)기업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전주시 기업 4개사를 포함한 총 16개 도내기업의 성과제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이날 성과전시회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향후 3차년도에는 시제품 및 테스트베드, 제품교급과 지원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군산시의회 L 의원, 기자회견 중 욕설 '논란'

#### 말다툼 끝에 결국 사과... 출입기자단, 징계 요구 예정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L 의원이 기자회견 중에 기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L 의원은 27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8명이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응도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하자 "야마! 이씨!"라는 욕설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들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시의회 의장단과 내홍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다.

그 과정에서 A기자가 "시의원들에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안 유발 주장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L 의원은 "우리(시의원)가 의혹을 제기하면 기자가 피해쳐야하는 것 아니

냐"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B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무턱대고 취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L 의원은 "야마! 이씨!"라며 기자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10여명의 기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동료의원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L 의원의 편을 들었다.

이후 기자와 시의원들이 육신각신 끝에 L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하고 기자회견 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청 출입기자단은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L 의원에 대한 의회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군산=장현기 기자

### 체육교사 여고생 성추행 '일파만파'

#### "치마 들켰다" 등 40건 피해진술 접수... 경찰청 수사 착수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을 성추행한 체육교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청에 체육교사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출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경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체육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자제 교정을 핑계로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일대일 면담 중 갑자기 치마를 들쳐

신체접촉을 했다 등의 40건의 피해진술이 접수됐고, 성추행 피해 학생은 25명이다.

경찰은 해당 체육교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해당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통보하기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상 학생들이 학교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초·중·고등학교

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담회에서 "피해 학생들의 제보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대규모 감사를 꾸려 해당 학교에 '부족한 인성을 지닌 교사가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교사·교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와 전반적인 학사운영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상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